다산포럼

우리는 관계를 찾아 어디로 가는 걸까?

유 지 나
동국대 교수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현실에 좌초되는 형국이다. 그런 와중에 본 '그녀'(her)라는 영화는 지구촌 도처에서 인생 여정 고뇌에 사로잡힌 존재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영화 시사회 분위기는 일반 극장보다 냉정한 편이다. 그러나 '그녀'의 시사회 분위기는 기이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소리로만 등장하는 스칼렛 요한슨의 관음적 음성이 남성의 성애 판타지를 자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자의적인 추측이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를 파고드는 관계 욕망 탐구이다.

"당신은 소녀 같아", "내 사랑, 세상 끝까지" 등등. 온갖 다정하고 달콤한 말들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손글씨 편지 대필회사 풍경에서 영화가 열린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단골이 많은 대필 작가로, 어떤 이들에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기념일마다 편지를 써주는 일상을 영위한다.

그러나 그런 자신은 퇴근 후 외롭고 삭막한 사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OS1(인공지능 운영체제)을 사면서 모든 게 변한다. 대화로 운영하는 오렌지색 프로그램 화면의 첫 질문은 목소리의 성별 선택을 묻는다. 남성인 그는 여성을 택한다. 이제 OS1은 사만다란 여성의 목소리로 등장한다.

산만한 이메일을 모두 정리해주고, 손편지 모음책 계약도 체결해 줄 정도로 뛰어난 비서역을 하는 사만다는 연인의 자리에 곧 진입한다. 비서 겸 아내를 거느리며 뛰어난 업적을 거둔 남성의 초상화를 보는 것만 같다.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이들이 그처럼 작은 기계장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요즘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과 접속하는 풍경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다.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배타적인 일대일 관계, 즉 그녀가 '사랑하는 내 여자'란 착각을 했지만, 그녀는 8000 명 이상과 교류하며, 641명과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몸 없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난국은 그 혼자만 직면하는 상황이 아니다.

미래사회를 다루는 SF 영화들에서 인간과 기계장치의 교류는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A.I'에는 지구온난화로 물에 잠긴 미래의 일상이 나타난다. 모든 것이 감시받는 통제 사회, 인간들은 인공지능을 가진 인조인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비박사가 인간을 사랑하도록 감정 프로그래밍이 된 로봇 소년 데이빗을 탄생시키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애달픈 여정에 들어선다.

'아이, 로봇'에도 로봇의 도움으로 사는 미래의 삶을 상상해낸다.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봇 3원칙'이 내장된 로봇은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인간의 신뢰 받는 동반자로 등장한다. 이런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심리학자도 나온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면서 사건이 발생한다.

지난 6월 8일,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사례가 영국 레딩대로부터 발표되었다. '튜링 테스트 2014' 행사에서 '유진'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 그 주인공이다. '유진' 이전에도 수차례 인공지능 컴퓨터 실험이 있었고, 이런 기술과학 문명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인공지능 장치가 스마트폰에 이어 상품화될 것이란 예상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MIT대학에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도 흥미롭다. 노인 요양원에 로봇 인형을 보내 할머니들과 한 달간 교류하도록 한 결과, 멀리 있는 자식보다 로봇과의 관계가 더 낫다는 반응을 전하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SF영화가 보여주는 미래 풍경이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난공불락에 빠지는 이들의 현재 풍경과 오버랩된다. 그건 마치 우리의 관계가 타자들과의 관계 이전에 본질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라고 일러주는 경고장처럼 보인다. 고독이 친구이기에 외롭지 않다고 노래한 조르쥬 무스타키의 '나의 고독'(Ma Solitude)이 내 속의 나와 사귀는 친구 관계처럼 들린다.

팁 : '그녀'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스파이크 존즈는 '각본의 천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 작품의 관계 탐구 몰입은 기를 차게 만든다. 수차례 각본상을 거듭 수상한 이 작품을 찾아보시길 권한다.

양동옥의 S스토리

획일화된 몸의 풍속도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태어날 때 나는 검다. 자랄 때도 검정, 태양 아래 있어도 검정, 추울 때, 무서울 때, 아플 때 또 죽을 때도 여전히 검다. 하지만 너희는 태어날 때 분홍, 자랄 땐 하얗고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강, 추우면 파랑, 무서우면 노랑, 아플 땐 초록, 멍이 들 땐 보라, 죽을 땐 회색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유색인종이라고 해야 할까?

이 글은 2006년 국제연합(UN)이 선정한 최고의 어린이 시(時)다. 개인의 잠재능력이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채, 타고난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명쾌하면서도 묵직하게 짚어준다.

여자는 키 168㎝에 몸무게 48㎏, 남자는 키 180㎝에 몸무게 68㎏! 연예인 프로필에 흔하게 등장하는 신체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의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역시 사람들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붕어빵 기계에서 찍어내는 붕어빵처럼 획일화된 신체적 특성을 요구한다. 즉, 개인의 내적 자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이상적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 거침없이 '패배자'(looser)라고 표현하며 신체적 열등감에 빠뜨린다.

사실 여성과 남성의 몸의 기준은 그 사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시대의 가치에 따라 변화한다. 하지만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은 외모보다 사회적 능력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성은 그들의 잠재 능력이 사장된 채 출산, 특히 아들을 낳아주는 것과 남성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종속된 몸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몸에 대한 기준은 여성에게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었으며 그 변화 역시 얼굴, 가슴, 엉덩이와 같이 몸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되었다.

예로, 19세기 서구 유럽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한 이상적인 외모는 정숙함과 모성 그리고 남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주는 이미지였다. 모성과 성적 매력, 그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한 여성들은 코르셋(corset, 허리를 졸라매는 속옷)을 이용해 최대한 가느다란 허리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큰 가슴과 엉덩이를 부각했다. 큰 가슴과 엉덩이는 어머니로서의 육체적 특성을, 가느다란 허리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을 동시에 뿜어낼 수 있었다. 허리를 과도하게 졸라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심각했지만,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 여성들은 그 고통을 기꺼이 참아냈다.

통통한 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남아프리카의 부시먼처럼 음식이 귀한 문화에서 통통한 몸은 부와 건강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던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몸매가 날씬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으로 평가했지만, 통통한 몸매의 여성은 아들도 잘 낳고 복이 많다고 여겨졌다. 특히 산업화 사회에서 남성의 '살찐 배'는 사업가의 축적된 부의 상징물로 여겨졌다. 미인대회가 열리고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에 여성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남성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 미모와 몸매를 갖춘 여성을 배우자감으로 선호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진 속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추측하게 한 연구가 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신체적 매력이 높거나, 남편과 아내 모두 낮거나, 아내는 높고 남편은 낮거나,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은 네 장의 사진이었다. 사람들은 신체적 매력인 높은 아내와 함께 있는 평범한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예측했는데, 이것은 신체적 매력이 높은 부부를 앞서는 결과였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평범한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과 사귀고 있다면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의 외모는 곧 남성의 능력이라는 공식이 작용한 것이다.

젊음과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날씬함의 추구는 더욱 가열해졌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동안(童顔) 열풍과 함께 여성에게는 날씬함과 풍만함의 에스(S)라인 체형을, 남성에게는 왕(王)자가 새겨진 초콜릿 복근에 몸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건강을 지향하기보다는 사회에 부합한 몸을 얻기 위해 다이어트에 몰입하는 현상은 날씬함을 넘어 마른 몸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통통한 몸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게으름과 자기관리 부족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며, 그 오명은 여성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다. 따라서 여성은 학업에 열중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의 이미지를 반추하며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고민한다. 그러한 고민이 자신의 건강이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사회에서 부여한 몸의 가치에 심리적으로 종속된 것인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종속되어 미(美)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 고

의미있고 안전한 수학여행 재개를 위해

나 승 채
광주전세버스조합 이사장

학창시절의 소중했던 기억을 되새기면 학우들과의 소풍, 수학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수학여행은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학창시절의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장 소중한 교육이자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4월 16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의 여객선 사고로 교육부는 4월 21일 전국 초·중·고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로 인해 단체 수학여행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또한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대안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 성급한 해결책이다. 과거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수학여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반복적인 학습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던 건 분명 큰 문제이다.

단원고 수학여행단의 사고로 집단적 수학여행 관련 안전성과 수학여행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는 시점에서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는 점에 다소 안타깝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안전한 수학여행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건은 엄밀하게 따지면 집단이동으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수학여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동수단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인재다. 기존의 집단적 수학여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수학여행은 통제와 규율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4~5월 성수기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일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일정 맞추기가 어렵고,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좋은 숙소나 안전한 이동수단을 사전에 예약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육청 지원 금액이 낮은 점과 경제연구소에서 산출된 기초금액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수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수학여행을 진행하다보니 최저가 입찰을 선호하나 낮은 금액에 좋은 숙소, 좋은 차량만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지원 금액을 다소 상향하거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에 맡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집단적 수학여행시 전세버스의 꼬리물기식(대열)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많은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차량별 집결 시간이 많아 대열운행을 본의 아니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열운행을 금지하는 여객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또한 수학여행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대열운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광주전세버스 업계의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2012년 하반기부터 전세버스 출발전 무료점검을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고, 전 업체를 대상의 안전교육은 물론 사고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방문교육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에겐 전세버스 이용 계약시 보험가입 여부, 차량검사 여부,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고려한 성급한 해결책은 지양해야한다. 세월호 참사가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정부와 교육부의 성급한 미봉책으로 단순히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창시절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대안이다. 수학여행을 폐지한다고 해서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다. 모든 기관과 단체 그리고 업체에서 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학생들이 학창시절 가장 소중하고 의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수학여행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社 說

'시민의 발' 묶는 시내버스 파업 철회해야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조합원 1320여 명(583대)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광주시와 사측인 광주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비노조원, 중형버스 운전원을 투입해 평소 일일 대수(930대)의 73%가량을 운행하면서 큰 혼란은 피했다.

하지만,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정류장마다 수십 명씩 줄을 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파업 소식을 듣고 서둘러 택시를 타는 등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일부 시민은 버스 배차 간격이 5~10분 이상 늦어져 애를 태우기도 했다. 또 95개 노선 중 장성, 담양, 나주, 화순 등 시외로 나가는 11개 노선은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우리는 지난 20일 본란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루 연인원 43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는 처사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주 시내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준공영제 실시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버스업체의 적자 해소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7년간 무려 2148억을 쏟아 부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5.29%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타지역보다 임금이 적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등도 공감한다.

하지만 명분이야 어떻든 시민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노조는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버스조합 측도 협상 테이블을 다시 열어 양보와 설득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버스 회사들의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 경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파업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힘겹게 사는 광주 거주 고려인 적극 지원을

러시아 이주 150년 만에 고려인 고국 방문단이 한국을 찾아왔다. 이들은 국내의 대표적인 고려인 거주지인 광주 고려인마을을 돌아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계획이 취소됐다. 러시아 동포들이 지역 고려인들의 힘겨운 삶의 실상을 보고 마음 아파할까 봐 이들의 고국방문을 주선했던 단체들이 일정을 급히 변경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고려인마을과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구성된 방문단 150명은 지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았다. 이들은 당초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맨 먼저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 마을에는 현재 2000명 이상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데 주변에 하남공단 등 공단이 밀집해 있고 고려인 정착을 돕는 단체와 동포들이 많은 점 등이 집중 유입의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고국에 온 이들은 한국말이 서투르고 변변한 기술도 없는 탓에 건설현장이나 식당 등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나마 퇴직금 지급을 꺼리는 사업주들 때문에 1년도 되기 전에 해고당하기 일쑤다. 주최 측은 사전 답사에서 이들의 힘든 삶을 목격하고 방문을 취소했다.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는 광주 거주 고려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그것이다. 조례는 광주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처우개선, 적응교육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끝없는 유랑의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더 이상 '머나먼 조국'으로 남지 않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겠다.

無 等 鼓

6·25 유해발굴

지난 2000년 6월 현충일, 화순읍 너릿재 입구에 위치한 무명용사 묘역에서 열린 위령제 취재를 갔을 때의 일이다. 재향군인회에서 세운 비석 내용에는 전사한 군인 26명의 이름과 계급이 적혀있는데도 무명용사로 불리는 것이 이상했다. 알고 본즉 매장시에는 목비(木碑)에 이름을 적어 세웠지만 세월이 흐르며 망실돼 봉분의 주인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무명용사들은 대구에 주둔했던 육군 8사단 3대대 군인들로 지난 1951년 4월초, 화순지역 화학산 등지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파견됐다가 전사했다고 한다.

육군 제31사단과 육군본부 유해발굴 사업단이 이듬해 5월께 무명용사 묘역 유해발굴을 시작하자 현장을 찾아보았다.

당시 급히 가매장하다 보니 유골과 함께 수류탄, M1 실탄까지 함께 발굴됐다. 이후 무명용사 26명은 전사한 지 50년만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일부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밝혀졌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됐던 미군 병사의 유해가 64년 만에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1991~1994년 미국 측에 한국전쟁 중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350~400명의 유해가 담긴 상자 208개를 미국 측에 건네줬는데 미 국방부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가 첨단 감식법을 활용해 그 가운데 한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1950년 11월 K사단 3대대 24보병연대 소속으로 참전, 압록강 부근까지 북진했다가 실종됐던 제임스 홈스 육군 일병이었다.

내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이다. 총성이 멎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남북간 군사적인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다. JPAC 부대 휘장에는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JPAC처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